



미 증시, 오미크론 정점 기대감 강화에 업종별 차별화 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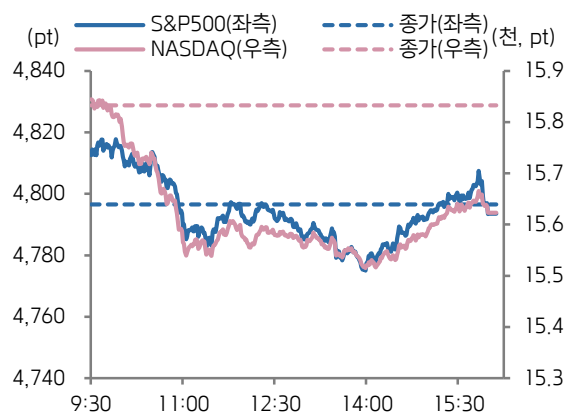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4일 (화) 미국 증시는 오미크론 정점 기대감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 장기물 금리 상승이 지속되면서 경기민감 업종 강세, 성장주 업종 약세 등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보임. 존스 홉킨스는 이날 오미크론 변이는 “몇 주” 안에 정점을 지날 것 이라고 예상하. 이에 따라 에너지, 금융 등 경기민감 업종들이 상승을 이끌. 하지만 미국 장기물 금리가 1.68%를 상회하자 성장주들에 대한 매물이 출회. 이에 따라 다우 지수는 상승한 반면, 나스닥 하락, S&P500은 보험권에서 마감(다우 +0.59%, S&P500 -0.06%, 나스닥 -1.33%, 러셀 2000 -0.16%)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들 중 12월 ISM 제조업 PMI 지표는 58.7pt(예상 60.0pt, 전월 61.1pt)로 예상대비 부진했지만 세부 항목 중 물가 부분(82.4→68.2pt)이 둔화된 점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 한편 JOLTs 구인건수 보고서는 1,056 억 명으로 시장 예상치(1,108 억명)를 하회. 이날 금리 상승과 더불어 연준의 조기 긴축 가능성이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이날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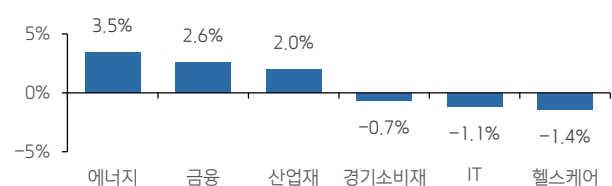
업종별로 에너지(+3.5%), 금융(+2.6%), 산업재(+2.0%) 등 상승한 반면, 헬스케어(-1.4%), IT(-1.1%), 경기소비재(-0.7%)는 하락. 미국 금리 상승 부담으로 전일 급등한 테슬라(-4.2%), 애플(-1.3%) 등이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5% 하락. 에너지는 유가 상승세(WTI +1.3%)에 힘입어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이끌었고 경기소비재는 테슬라 주가 부진 등으로 인해 하락 폭이 가장 컸음. 한편 보잉(+2.8%), 카니발(+1.5%), 마리어트(+2.5%) 등 여행 관련주들은 업황 개선 기대감에 연일 강세 흐름을 이어감.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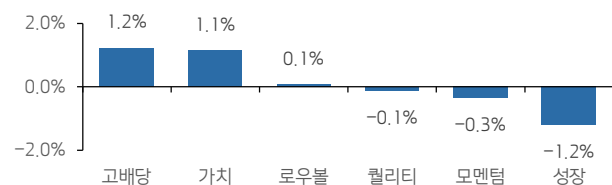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793.54	-0.06%	USD/KRW	1,194.11	+0.19%
NASDAQ	15,622.72	-1.33%	달러 지수	96.30	+0.09%
다우	36,799.65	+0.59%	EUR/USD	1.13	-0.12%
VIX	16.93	+1.99%	USD/CNH	6.38	+0.01%
러셀 2000	2,268.87	-0.16%	USD/JPY	116.14	+0.71%
필라. 반도체	4,009.00	-0.45%	채권시장		
다우 운송	16,579.59	+1.7%	국고채 3년	1.884	+3.2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327	-0.3bp
Eurostoxx50	4,367.62	+0.83%	미국 국채 2년	0.756	-1.2bp
MSCI 전세계 지수	756.94	+0.28%	미국 국채 10년	1.647	+1.9bp
MSCI DM 지수	3,241.43	+0.3%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33.50	+0.12%	WTI	77.02	+1.24%
MSCI 한국 ETF	77.69	-0.22%	금	1814.6	+0.8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22%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35%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8%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98.6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경기민감, 리오프닝주 급등이 국내 관련주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주가 흐름
2. 미국 성장주 주가 급락으로 인한 국내 성장주들의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
3. 원/달러 환율 재급등이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순매수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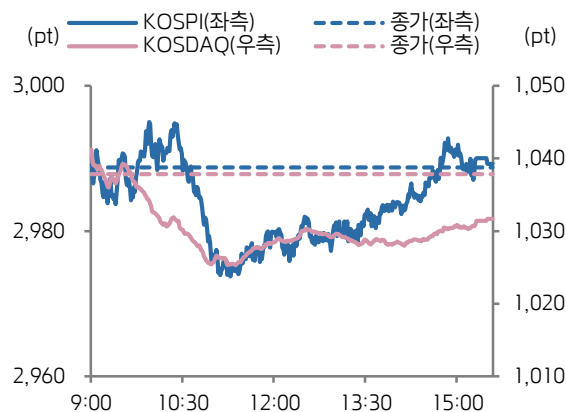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현재 미국 증시는 시장금리 단기 급등 사태가 성장주들에게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재현되고 있는 모습. 지난해 12월 중 한 때 1.36%대까지 내려갔던 10년물 금리는 현재 1.64%대까지 빠르게 올라온 상황. 금리 급등의 배경으로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미국은 현재 신규확진자수가 100만명을 상회하는 등 역대급 대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러나 WHO에서도 밝혔듯이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변이들에 비해 증상이 가볍다는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음. 가벼운 증상의 변이 확산은 오히려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기대감으로 변해가고 있는 만큼, 전거래일에 미국 증시에서 금융, 소재, 산업재 등 경기민감주들이 급등한 것도 이러한 기대감에서 기인.

더 나아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전망이 금리 급등의 또 다른 배경으로도 지목되고 있는 만큼 성장주들은 지속적으로 주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 이와 관련해 12월 ISM 제조업 PMI의 결과에 주목해볼 필요. 12월 결과는 58.7로 전월(61.1) 및 예상(60.5)에 비해 부진했으나, 세부항목 상으로 보면 공급자 배송지수(72.2→64.9), 가격지수(82.4→68.2) 등 공급난 관련지수들이 전월에 비해 급락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결과. 현재 미국 내 공급난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전망에 힘을 실어주면서 추후 금리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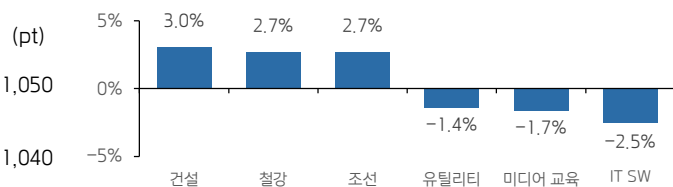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도 시장금리 상승 및 달러화 강세 등 약세 압력이 우위에 있을 전망이나, 경기 회복 기대감, 미국 발 공급난 완화 전망 등이 지수에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또한 미국 성장주들이 급락을 맞았던 만큼, 금일 국내 증시에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심리는 위축될 전망. 다만, 미국 성장주들은 고점부담에 따른 차익실현 압력이 컸던 반면, 국내 성장주들의 고점 부담은 크지 않았음. 더 나아가, 국내 전거래일에 이미 한차례 가격 급락을 맞았다는 점을 감안 시 과도한 불안을 가지고 매도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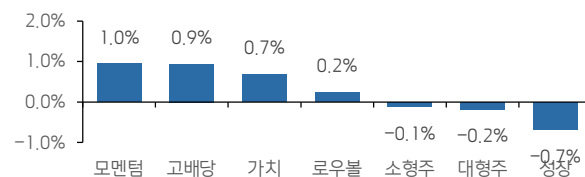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E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